

## [반도체]

## 낸(NAND)붐온

이수림 반도체 02-709-2661 surim.lee@ds-sec.co.kr

2026.04.16

## 형님 따라 아우도 갈 차례

DRAM의 가격 상승률과 이익률을 이제는 NAND가 따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수요 구조의 차이로 인해 DRAM 업황 개선이 선행했지만 NAND 역시 감소 효과 누적, 재고 정상화, 그리고 eSSD 중심의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수급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DRAM은 AI 서버 및 HBM 중심의 구조적 수요 확대에 의해 공급 타이트가 빠르게 심화되며 가격이 먼저 급등한 반면 NAND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및 범용 수요 비중이 높아 회복 속도가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NAND 역시 AI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중심의 구조적 수요를 일부 흡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1Q26 삼성전자 DRAM 영업이익률은 79%, NAND 영업이익률은 53%로 추정한다. DRAM 스팟 가격은 2025년 대비 +600~2,000% 이상 상승하였고 1분기에도 DRAM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90~95% 수준 상승하였다. 반면 NAND는 1분기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55~60% 수준 상승했고 스팟 가격 역시 우상향 흐름은 유지되고 있으나 DRAM 대비 상승 속도는 완만한 수준이다.

## NAND 증설 소식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방증

최근 공급 업체들의 NAND 투자 발표는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구조적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성격으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는 대련 Phase 2 투자 재개를 결정하였는데 장비 반입은 빨라야 2026년 하반기 시작될 예정이다. 마이크론 역시 1월말 \$24B 규모의 싱가포르 NAND 팹 신규 투자 및 증설을 발표했으며 양산 시점은 2028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P5 NAND 투자 또한 최근 재조명되고 있으나 역시 공급 기여 시점은 빨라야 2028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이처럼 주요 업체들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까지는 상당한 리드타임이 존재하는 만큼 2027년까지 NAND 수급도 타이트한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YMTC 역시 3공장 가동 및 추가 2개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나 초기 수율 안정화 리스크와 글로벌 eSSD 시장 내 낮은 점유율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유의미한 공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특히 YMTC의 영향력은 여전히 중국 내수 및 범용 제품 중심에 국한되어 있어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Top picks: 삼성전자, 피에스케이, 씨엠티엑스, 티에스이

DRAM이 먼저 이익의 레벨을 끌어올렸다면 NAND는 이후 구간에서 이익의 방향성과 모멘텀을 이어받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상반기까지 300단 대 NAND 전환으로 인해 사실상 감소에 가까운 환경이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 재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는 판단이다. 이는 글로벌 NAND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에 게 가장 긍정적이다. 소재/부품/장비 역시 NAND 전환투자 및 신규투자 확대, NAND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점진적으로 가시화 될 전망이다. 관련 종목으로 피에스케이, 씨엠티엑스에 대한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관심종목으로 티에스이를 제시한다.

---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